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86호
11월 27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전기총연(이사장 임영문 목사)을 비롯 전국 17개 지역 기독교 단체 등이 주축이 된 '국가비상 긴급 기도대성회'로 모인 성도들은 기도회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생방송으로 중계된 유튜브를 통해 수만 명이 함께 기도했다. (예하성 총회장 신재영 목사-경북기총대표회장-가대표기도하고 있다.)

코로나로 교회압박 1만여 곳 문 닫아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법치 바로 세워야

국가비상 긴급 기도대성회, 부산에 전국 대표들 모여 합심 기도

"잡지는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나부터 회개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지난 11월 11일(목)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모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의 조직으로는 상임고문 조용목 목사, 대회장 정필도·최홍준·김명석 목사, 본부준비위원 임영문·박원영·나영수·장갑덕·윤상운·박경만·김영일·박종호·홍호수 목사가 맡아 수고했다. 전기총연(이사장 임영문 목사)을 비롯 전국 17개 지역 기독교 단체 등이 주축이 된 '국가비상 긴급 기도대성회'로 모인 성도들은 기도회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나영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하성 총회장 신재영 목사(영북기총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김진홍 목사의 영성메시지, 김영석 목사의 축사, 권영태 장로의 기쁘사, 한효연 직전회장 권태진 목사와 정광택 장로의 격려사, 김영일 목사의 성경봉독, 호산교회 원로 최홍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홍준 목사는 요일 4:7-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시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가 회개하면 가정과 교회, 나라가 회복될 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 회개의 영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영 목사의 취지 및 경과보고, 내외빈 소

개,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의 환영사, 광주 정다온교회 김중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한 비서관에게 현정권 주요 인사들이 '기독교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의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혐오하고 말살시키려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1만여 개가 사라지고 수많은 목회자가 일용직이나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날 성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과도한 대면에 급지 조치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그 터 위에 세워진 수많은 한국교회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하실 것"이라며 "우리가 영적 낙동강 전선인 부산에서 회개함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함주어 말했다.

1부 예배, 2부, 3부, 4부 기도회로 5시간 여 동안 계속된 기도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5시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유튜브를 통해 수만 명이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강사로는 김봉준(아름길사랑교회)·원대연(예장 고신 약법저지대책위원장)·원성웅(옥도교회)·안희환(예수비전성결교회 담임)·박영우(광주 안대교회 담임)·이우택(울산기독교연합회장) 목사 등이 말씀을 증거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의 한 나님께서 자신에게 목회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는 회개의 주제로 첫째는 예배 탄압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것, 둘째는 북한 정권에 돈을 퍼줘서 결과적으로 국내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을 말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한 죄 등을 회개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집회 도중 강단 위에 올라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또 정권교체, 대중동시 엄정 수사, 요소수 확보,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 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전신 소독, 체온 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주최 측은 이 집회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며 기도대성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열린 국가 긴급 기도대성회에 전국에서 모인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프로 소장
의
말씀
은
시대

‘아주 특별한 사람’

“아그림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행 26:28,29)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분류한다면 의인과 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 시민과 지옥자식,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 등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것을 가리키며 대체로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속에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소속의식이 확고부동하고 자기 소속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소속에 관련되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멸망과 구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소속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소속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서 주님의 인도와 결정에 맡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그의 선하심과 무궁한 자혜로써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의하거나 해롭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고전 10:31) 거룩한지 때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갑니다.(고후 5:9)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특별한 소속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소속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복 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제일이며 우선이며 중심입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과 복음법률가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안'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한 언론사가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506개 단체가 연대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2020년 6월 이후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문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위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대다수 국민도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3차례나 1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 단연합체인 한기총과의 연대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기말이라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것인가?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표를 의식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껏 여당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어 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এমন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찬반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암암적, 신양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임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화합의 본보기 되자” 총회준비 만전

한교연 제10-6차 임원회, 총 47개 교단 22개 단체로 확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11월 15일(월) 오후 1시 경기도 가평 열린복지랜드(이사장 원종문 목사) 내 열린교회에서 제10-6차 임원회를 열고 예정 대신 정통 총회(총회장 정택경 목사)의 가입 건을 심의하고 3주 앞으로 다가온 제11회 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가입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정 대신정통 총회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에 어떤 하자로 없다는 보고에 따라 가입을 허락하는 한편 인준절차는 다음 달 총회시에 거쳐기로 했다. 총회에서 인준될 경우 한교연 가입 교단은 47개 단체는 22개가 된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립을 10회가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지난 11



개월동안 지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임원들과 직원들, 47개 회원 교단과 22개 회원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어 “올 한 해가에만 18개 교단과 단체가 새식구가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교연의 외연

이 확장되었다”면서 “이는 한교연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며 목목히 제 사명을 바로 감당해 온 결과”라며 “다음 회기에도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연합기관의 본을 보이자”고 말했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제26차 정기총회

임원 선거는 4년마다, 현재 임원들 그대로 유임



양정섭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대표회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회의는 지난 11월 15일(월)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2층 루아시기념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제1부 예배는 한국

기독교개혁신교단협회의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교회 총회 총회장 박형렬 목사가 ‘연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합동부흥총회총회장 김관현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곧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년도 사업안과 세

입, 세출안을 전년도와 같이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모든 안건과 세미나 등은 이사회에 위임했다.

신년하례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회의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총회 김관현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회의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3개 단체가 연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31절 행사는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주관으로 3개 단체가 맡았고, 625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회의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주관하며, 8.15 공복절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회의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가 주관하기로 했다. 모든 안건은 임원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는 4년마다 이뤄지는 관계로 현재 임원들이 유임됐다.



새로남교회, 연탄나눔운동 활발히 전개

대학·청년부 연탄나눔 봉사료 이웃사랑 실천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대전시 서구 민병동)는 올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11월 6일(토) 젊은이대학, 청년 예배에서 이웃사랑 연탄봉사 발대식을 갖고 대전 연탄은행과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각각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한 청년 이다혜 성도는 대전 동구 소재 동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연탄봉사를 하게 된 체험과정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특히 새로남교회의 구호인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를 대변 봉사 때마다 외침과 연탄봉사를 마친 후 피로로 인해 청년부 모임시간에 앓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보다 더 기쁨의 웃음소리로 같이 들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다.

이날 신원구 목사대전 연탄은행 대표는 지난 17년간 연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새로남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작년 연탄 7,800장을 나눴고, 지난 6월에는 젊은이부서의 청년 60명이 대전 대덕구에서 연탄나눔을 한 것을 소개했다.

신 목사는 “청년들이 옮긴 연탄의 총 장수는 21,000장이고, 개당 3.65kg으로 만만치 않은 무게를 옮겨서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래도 따스하고 기쁨 마음으로 봉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했다.

이어 이상근 관장(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대전지부장)이 그동안 연탄나눔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 관장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며 봉사 기간이 5년 정도 됐고, 대상은 가정에서 연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 특히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남교회는 4년 전부터 이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새로남교회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의 실천이 힘들었고, 다른 교회들도 이 좋은 일에 함께 동참을 하면 좋겠다”라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교회 재개발 세미나’ 연다

11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는 11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개발, 3000 정차대로 재개발·재건축 중 가로주택 재개발, 지방 혁신도시 등 새로운 재개발 형태가 지속되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종류별 대처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한국 여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회 재개발과 관련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와 조합과의 관계 등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교회 재개발 동향 △최근 교회 재개발 성공과 실패 사례 △공공주도 개발형태, 민간주도 개발형태 등 교회 재개발 종류별 대응 방안 △시책 명도소유 실패 후 보상 가능한 방법 등을 강의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세미나 경험을

토대로 교회 재개발에 대한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현재 각 교회의 재개발 단계 대응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봉석 소장은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12년 동안 재개발로 인해 조합 측과 성도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재개발을 기본으로 여러 교회들을 도왔던 노하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회자 재충전 위한 목회세미나

김진호 목사, 위드코로나 시대 목회와 교회의 비전

비전 교회와 함께하기 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가림 전 감독회장)에서 주최한 제2차 신바람목회세미나가 지난 11월 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봉감리교회(담임 이광호 목사)에서 열려 위드코로나시대 목회와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김진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비전 교회가 일어나고 지도자가 다시 힘을 내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가 도전과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회 이광호 감독의 수 3:17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제를 메라’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제1강의는 박준기 목사(행복이 가득한교회)가 맡았다.

박준기 목사는 ‘사막에도 지도가 있다(언약강화 회를 세우는 4가지 목회 레시피)’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원리로 말씀·기도·전도·교제(문화)를 들어 설명했다. 제2강의에 나선 박승효 목사(사도들교회)는 ‘교회성장에 필요한 10가지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승효 목사는 10가지 전략으로 ‘목회철학을 세우고 본질에 최선을 다하라’,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매년 전도축제를 진행하라’,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핵심교

인(리더)을 양육하라’,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라’, ‘모텔링교회와 멘토 목사님을 정하라’, ‘주요를 꼼꼼하게 만들고 활동하라’, ‘적극적인 태도로 목회하라’, ‘기록과 자료를 철저히 하라’,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라’를 제시했다.

제3·4 강의는 회장 김진호 목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WCC가입교단 기관통합에서 배제 요청

한기총, 제32-2차 임원회에서 논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11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동일로 소재 영화교회에서 제32-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6명 참석, 1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보고사항과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기관통합 관련 안건은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와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최종합의한 합의서와 원활한

기관통합 논의를 위해 스스로 행정보류를 요청해 온 3개 교단(단체)의 행정보류 신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황재철 목사의 제의에 따라 WCC에 가입된 교단은 기관통합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한기총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 개최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기관통합결과를 보고 그 후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비 납부 미이행에 대한 처리의 건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임원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게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

청했다.

윤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 목사가 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한 후 김 모 목사 등 4명 제명, 박 모 목사 등 2명 회원자격정지 2년,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그리고 총무협의회 자격정지 2년, 총무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개인자격정지 2년을 상정하였으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의장이 총무협의회는 자격이 아니므로 자격정지는 불가하고, 총무협의회 임원들 중 회장 김 모 목사 외 다른 임원들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서에 따르면 실제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바,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 금지 2년, 총무협의회 회장 김 모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나머지 총무협의회 임원들은 자격정지에서 제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

성서공회, 파키스탄에 성경 보낸다

서원경교회 후원으로 ‘우루두어 성경’ 3,263부 보내

2021년 11월 11일(목)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서원경교회(황순환 목사)의 후원으로 파키스탄에 ‘우루두어 성경’ 3,263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식에서 황순환 목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우루두어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며 기쁨과 기대를 전했다.

공회 권의현 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슬람의 압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성경을

후원해 주신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대와 감사를 전했다.

(사)예장합동중앙, 총회장 취임예배

전국노회장 연석회의도 함께 가져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는 지난 11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한하리조트 평창휘트니스 파크에서 제55회기 총회 총회장 송홍열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 및 전국노회장 연석회의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총회’라는 주제로 가졌다. 취임식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총회

서기 고재일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윤화란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서울동노회 정원석 목사의 특송, 전 총회장 조갑문 목사의 왕상 13:1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취임예배는 총회장 송홍열 목사의 인사말, 감사 감사부활 목사의 축사, 전

총회장 조옥련 목사의 권면, 총회장 취임패 수여, 꽃다발 및 선물증정, 총회장 송홍열 목사가 교단임원 및 신임노회장 축하패 전달, 총무 함두만 목사의 광고, 감사 전복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송홍열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합동중앙총회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의 위임받은 교단회원 모두”라며, “부족한 종을 제55회 총회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말했다.

송 총회장은 이어 “총회장으로 뽑아주심에 어긋나지 않게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앞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마음을 합하는 총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회 △하나님의 지체로서 순종하고 총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싸워온 기독교... 차별금지법은 전도를 불가능케 해

인천지방회 월례회 및 세미나 개최

인천지방회(회장 정진균 목사)는 지난 11월 15일(월)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77년길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월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법안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를 분명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 세미나를 통해 밝히 깨달아 알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월례회 및 세미나는 먼저 월례회로 지방회장 정진균 목사의 인도로 회부 처리에 들어가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및 회계 전장백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김진원 목사의 총무보고, 지방회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을 토의하고 조성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지방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한 뒤 세미나로 이어졌다. 총무 김진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낙연 목사의 특송, 증경회장 김경근 목사의 대표기도, 인천지방회장 정진균 목사의 감사소개, 한국

보건협회 대표이며 전국을 다니며 차별금지법인의 폐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얼마나 불편부당한 법안이며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 알리고 있는 김지연 약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김지연 약사는 먼저 "기독교는 모든 차별과 싸워왔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독교 전도는 불가능해진다"고 전하고 "동성애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과 성적 끌림을 느끼고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따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시선 역시 변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한 나라마다 엄청난 폐해가 일어나고 있고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동성애법을 제정한 나라들의 역차별과 불평등한 일들을 그대로 겪게 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그렇기에 동성애라는 유혹



정진균 목사
인천지방회장



김지연 약사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 강사

앞에 놓인 청소년들이 동성애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선택을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성경적 성교육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고 함주어 말했다.

'성경적 성교육'에 관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연 약사는 성경적 성교육에는 동성애가 일으키는 보건상 문제와 이를 통해 청소년이 겪게 되는 잘못된 성 가치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공교로 한국 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에서 발행한 '딩동! 선물왔어요' 책자를 활용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기독교 성정체성을 수호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김지연 약사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



하고 주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 위험성과 심각성이며 지금은 성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진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성애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건상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의 의료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미 여러 나라의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Male to male sexual contact)'라는 사실이 조사 됐고, 2000년대 통계에 따르

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비롯해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는 동성애자일 때 일반인보다 약 183배가량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암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항문암' 역시 남성 간 성행위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보다 약 40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동성애자의 수명에 관한 연구 역시 모두 동성애자가 수명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성애자의 경우 한혈이 전염 금지된 부분 역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도 결국 보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동성애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건상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

진국의 의료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미 여러 나라의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김지연 약사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 위험성과 심각성이다. 지금은 성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진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김지연 약사는 지금도 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세미나는 총무 김진원 목사의 광고, 손인환 목사의 나라와 민족, 교단 총회와 교회, 지방회,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인도 후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이날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뜨겁게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육준수 목사)는 지난 1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다사량교회(담임 이경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박용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한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제부 분찬우 목사의 사회로 총무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 분찬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육준수 목사의 영 4:11~16 말씀은 본문으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이라는 제목의 설교, 우광덕 목사의 한글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회장 육준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



부 월례회는 서기 박태균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강인덕 목사의 총무 서기보고, 재무 분찬우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박태균 목사의

회계보고 후 기타안전에 대해 토의하고 증경회장 이경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순복음세움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4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지방회장 한승남 목사(반송순복음교회)의 기도,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정기영 목사의 예식사와 서약 선언 후 안수위원 한병철 목사, 박용호 목사, 고영권 목사, 조병희 목사 등의 안수례와 담임 목사의 공포와 임직패 수여, 권사 서약, 안수위원의 안수기도와 악수례 순으로 이어졌다.

임직예배를 마치고 3부 순서에서는 순복



음세움교회 조수민 자매의 특송과 김보미 비올리스트의 축하연주에 이어 서면순복음교회 정구영 원로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증경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권면, 최규환 안수집사의 답사, 증경지방

회장 한병철 목사(부산신학교 학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최규환 안수집사, 강경수 안수집사, 허훈 안수집사, 김은경 권사, 김수영 권사.

추계 수련회 갖고 지혜로운 종의 자세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11월 16일(화) 충남 대천에서 추계 수련회를 가졌다.

고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심령의 모습들을 대전 앞바다에 쏟아 붓고, 영적충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였다. 지방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행남도 휴게소에서 만나 총무 서경오 목사가



직접 공수해 온 차로 티타임을 갖고 대전으로 향했다.

대전 횡성에서 풍성한 식사를 마친 후 해안가와 어시장을 둘러본 후, 해발601m의 성주산 일출 전망대에 올라 펼쳐진 대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며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병든 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이어 지방회장 박흥열 목사의 광고와 마무리 기도모임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묵양지로 돌아갔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 생명의 말씀 ■



강순구 목사

· 설만화물가 선교교회

사적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계산하는 셈법을 말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셈이 덧셈이고 그다음에 뺄셈을 배우고 그 학년이 될수록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신앙의 사적연산 원리를 생각해보자.

1. 더하기

신앙생활의 덧셈의 원리는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맨 처음 교회에 나오면 시작되는 원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

질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요 1:12).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덧셈 법칙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때부터 인생의 덧셈이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머리로는 믿던 신앙이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과 새로운 만남과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2. 빼기

신앙생활의 뺄셈의 원리는 주님을 믿고 난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잊을 것 잊어버리는 것이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뺄셈 공부를 빌 3:7-9에서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게 생각되었던 것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는 것이다. 신앙의 덕을 위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지.

신앙의 뺄셈을 하라는 것이다. 영적으로

도 빼기 신앙생활을 절해야 한다. 죄를 끊고 갖가지 잘못된 과거의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빼내야 하는 것이다. 뺄셈의 삶은 후회나 정체가 아닌 전진과 성장이다.

3. 곱하기

곱셈의 원리는 신앙생활의 복을 의미한다. 이삭은 양떼를 기르는 유목민이다. 정작하여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다. 농사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사해 백 배나 거두었다. 그것도 모두다 흉년이 들 때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소년이 바친 때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게 거두었다. 어린아이의 욕심의 주머니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기적이었다. 곱하기의 복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 곱하기

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4. 나누기

하나님께서 곱셈의 복을 주시는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나누기를 잘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나눔은 분배가 아니라 배품이다. 나눔의 삶은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배품을 실천함으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나눔은 덧셈 뺄셈 곱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학이다. 곱셈에서 나눔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다. 나눔의 원리는 주님의 삶의 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섬김은 나누어주고 나누어 받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랑 위로 슬픔 소망 고통 기쁨.. 등등 모두가 이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나누기 삶은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구체적 행동이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서로 나눔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슬픔을 나누면 기쁨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복음을 나누면 우리 모

두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천국 수학의 가장 높은 수준은 나누기다. 이 나누기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

왕상 17장에 나오는 시므와 과부의 기적은 신앙생활의 뺄셈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잠 11:24에 보면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라고 했다.

눅 6:38에 “누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했다.

《행복사적연산 / 강순구》

사적연산 문제를 풀어본다. 법칙을 모를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법칙대로 풀어보니 시원시원/주님의 은혜는 감사로 더하고/허물과 죄는 철저히 회개로 빼고/순종의 은혜는 날마다 곱하기 하여/답으로 주신 행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살아 가리

동 정

아신대-경기도교육청 MOU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지난 11월 8일(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교원연수 운영

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청-거점연수원-연수기관이 지역 단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수기관 특성을 반영해 연수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노인기독교연합회 출범



대한노인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월 19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연합회는 어르신 행복 추구, 복지 증진, 기독교 정신 회복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 단체 대표회장으로 김성아 목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추대했다. 상임회장 김병은 목사, 실무회장 박종철 목사, 운영회장 김현수 목사이다.

세기총, 정부 제정 움직임 비판



세기총(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법제정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환, 저소득 가정에 기부



국 제 구 호 개 발 NGO 세이브더월드런은 지난 11월 17일(수) 안정환 홍보대사와 스포티비 나우(SPOTV NOW)가 저소득 조부모 가정과 아동을 돕는 DREAM사업에 위해 유튜브 채널 수익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

활성화 위원회’ 발족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목사) 이하본부는 지난10월,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위축된 장기기증 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생명나눔에베 등 대면 캠페인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써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전년 대비 25.6%나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본부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70% 가량이 기독교인일 만큼 장기기증 운동에 있어 한국교회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에 본부는 생명나눔 운동의 활력을 되찾는 데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를 결성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오죽하면 유엔 총회에서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국제사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때문이다.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국군 포로에 대한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군 포로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의 인권 문제와 송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

은 없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은 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데, 그들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의 노력과 북한 당국의 협조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국군 포로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1994년 고 조창호 소위의 귀환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논의나 송환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가장 먼저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언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는 이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 정부는 빠진 것이다. 자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 기해자의 눈치나 보는 정부를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이것은 엄밀히 북한의 눈치를 볼 시간도 아니고, 평화 ‘운운’ 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생사 문제와 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일도 아니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가 고문·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유엔에서 결의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여 북한 주민 인권과 국군 포로 인권의 소중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동성애 등 소수자의 세세한 인권까지 강조하는 정부가 왜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할 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무시 국가로 오해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정작 눈치를 보아야 할 곳은 우리 국민과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절대평가이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압정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한명정 목사와 교역원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평등법)

한국교회법학회 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한재 교수)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2020년 8월 1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이 든다”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만큼 차별이 심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에 불과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동성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은 응답자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

교회법학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여가지의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은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며,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인 것이다”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교회법학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자각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문자와 고발과 소송을 남발해 국민 각계 각 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

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며 “그러므로 여기에 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교회법학회는 “인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종교의 자유, 코로나19 엄중 상황이라도 보장돼야”

예자연, 집합금지 명령 취소 1심 소송 기각에 관한 입장

한법상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을 알립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교회 예배의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려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였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하였으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 당국이 교회의 예배만을 차별한 데는 나름 그 이유가 있다. 실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배경에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하위 조직단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발언은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으로 하달되어 위반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발생한 2차 대유행도 정부의 안이하고 오판적인 휴식 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평화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정상적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20. 7. 21)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지친 국민에게 귀중한 휴식을 주겠다” 지시 이후 8월 3일 문화부에서는 900여 원의 문화소액 할인권을 배포하였다.

2020년 8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회발’이라는 하위 통제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였다. 이는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다중시설과의 형평성과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설과 차별을 두었고, 또한 종교시설 중에도 유독 개신교

현장 예배에 대하여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고 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심을 쓰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도 당연히 금지되지만, 특별한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은 허용해준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의 발상이다.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정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정교본리 원칙에도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명령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교 의식에 대하여 무종교인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하여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빛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9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정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빈·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쿼드 체제’ 출범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 논평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쿼드 체제 출범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쿼드 체제(Quad) 구축 방안이 제기되고 지난 2021년 3월 화상 모임 이후 첫 정상 대면 방식의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쿼드 체제는 공식 출범하였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강화분제를 비롯해 불법 해양 조업 퇴치, 5G 파트너십 구축, 우주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있다.

살통나비는 쿼드체제 출범이 앞으로 세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전경하는 바이다.

1. 첫 ‘쿼드’ 정상회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강조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첫 쿼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쏟고 동맹 규합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다른 세 나라가 합세한 결집체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다.

모리스 호주 총리는 “인도 태평양이 강압이 없고 주권이 존중받으며 분쟁이 국제법에 부합해 평화롭게 해결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스가 일본 총리도 회담 후 기자회견과 만나 “쿼드 정상들이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청자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별 전 만났을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궁정적 야언다들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 약속을 했던 것이 이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쿼드 4개국 정상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쿼드 체제는 미국이 호주와 인도와 협력하여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쿼드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역설한 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약제하려는 데 있다. 관련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형국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와 중국 간 최근 표출된 갈등관계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정부의 ‘쿼드’ 회원국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를 가시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사적 강화를 추진하려는 데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리스 호주 총리는 5억 8000만 달러(약 6450억 원)를 들여 국방 군사기지 4곳을 개선하고, 미국과 공동훈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방방 군사기지 개선 작업은 올해 시작해서 2026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호주 북부지역 4곳 군 기지의 개선, 대형 항공기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격장 정비 및 국방인력과 미 해병대를 위한 새로운 훈련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특정 긴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영토에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호주와 중국 간에 외교 및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호주 측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청한 이후이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5G(5세대 이동통신)시장 허위 퇴출,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문제 국제포럼 주도 등 호주의 반중시제 14가지가 적힌 문건을 발표

하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에는 호주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파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핵심 외교 전략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인도 모디 총리 역시 “새로운 시설들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쿼드체제가 대중국 방어 전략에 힘을 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3. 미국은 쿼드 체제에 발맞추어 자유민주체제 지키려는 대만의 안보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또 다른 긴장 국면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이다.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만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틀간 중국 군용기 77대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다.

미 국방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은 “미국은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도발적이고도 불안정하며, 확오의 위험이 있고 예내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미·중 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대만 무기 판매 의무화)과 ‘6개 보증(레이건 대통령의 대만 지원 구두 원칙)’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rock solid)’,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대만과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방국들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는 우방국인 한국의 동참

을 기대한다는 뜻이면서 쿼드 플러스에 참가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4. 대한민국은 쿼드체제 출범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요청과 참여를 막으려는 중국 사이에서 국익 중심의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쿼드 체제’는 다국체제의 중심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세력이 포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확고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등 쿼드 국가들은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정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특히 ‘쿼드 플러스’ 참여가 남북관계에도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쿼드 첫 대면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북한이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맹의 힘을 보태 강도를 높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화제에는 그동안에도 수백 번 언급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핵심 주제인 핵 포기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북한은 두 차례의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므로써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데다, 중국은 북한을 굳게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선택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해 오고 있는 사실과 그간 미국과 한국이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었지만 번번이 거부한 것은 정작 북한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북한의 미사일 강화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한 흔적이 없어 아쉽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답하게 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노예적 상태로 몰고 갈 뿐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不可近不可遠(들가근불가원)’의 나라이다. 지리적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는 나라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국익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외교적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5. 쿼드 참여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견제 전략은 아예 오늘 의 과제는 아니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대립, 불신의 골이 형성되어 왔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여러 행동들이 중국의 발흥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인권을 옹호하는 모습은 중국의 국내 정치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중국을 영원히 2인자에 묶어 두려는 최후 대결의 전조라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의 우월한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까지도 체계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영향력 있는 집단들은 냉전 시대의 구소련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주변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패권까지 차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우려한다.

8면 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혜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선교부장 김순자 목사
회복교회



복자부장 이복순 목사
진리과사랑교회



봉사부장 김종애 목사
군암순복음교회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성광교회



행정부장 김찬애 목사
추계교회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
일산복음교회



행사부장 이명순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친교부장 조은애 목사
순복음원도교회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정애순 목사
예수왕교회



서울동남지방회 지부장 이현숙 목사
순복음시랑교회



경기남부지방회 지부장 최금자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김정순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표현자 목사
시냇가에심나리교회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서석자 목사
동성현성교회



일산지방회 지부장 실수자 목사
순복음강교회



대전지방회 지부장 김희자 목사
목자교회



충청지방회 지부장 서명란 목사
늘푸른교회



충남지방회 지부장 한정숙 목사
예수시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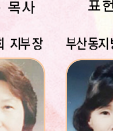
충청지방회 지부장 김문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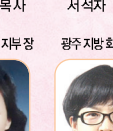
경남지방회 지부장 정금자 목사
세계로교회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이순애 목사
순복음온혜교회



부산지방회 지부장 김경옥 목사
하늘소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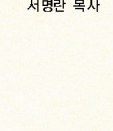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황연선 목사
순복음온혜교회



광주지방회 지부장 김정순 목사
온혜역교회



호남지방회 지부장 정복례 목사
순복음종산교회



은진지방회 지부장 심연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교단공과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① 아동부 공과교재
- ②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③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④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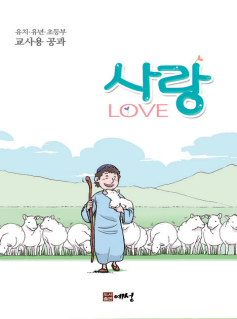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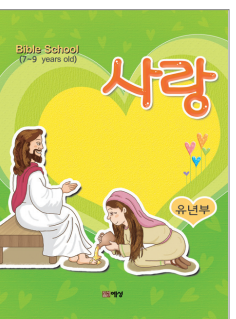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전북대 연구논문) : 타식물린은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호서대 연구논문)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면역력 증가

6)칼슘

(호서대 연구논문)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 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교회의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 강력 규탄

역차별 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반대

2021년 제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1년 제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11월 18일(목) 오전 7시 시온감리교회(담임 김수홍 목사, 본회 상임회장)에서 개최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방역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한편 역차별을 유발하는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후원회장 한상문 장로(온양온전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온양온전감리교회)는 환영사에서 오늘날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를 배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다는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차기로 넘겨졌지만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아니며,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상은 공산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필수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기에 철저히 경계

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찬기도회는 작은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가 민족복음화는 물론이요,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이어 “교회의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정책과 동성애법,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과 또한 코로나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교회폐쇄법 등의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도 강력히 막아야 하고, 이러한 악법 제정반대를 위해서 교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더욱 모여서 기도하자”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정을 막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하며, 교회를 지키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삼광장로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정수희 목사(주영광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본회 고문 김소운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마 5:9 말씀을 본론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살림’ 평안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화평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타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화평케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선물하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



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본회 회계 박인숙 목사(샘교회)의 헌기도, 본회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시온감리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보고회 및 공지사항 순서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가 상임회장 박기환 목사에게 전안아산노회(통합) 6대 노회 장취임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시인 신상우 목사를 대신해 본회 총무 차추병 목사가 “잘가라 신축년”이란 제목의 축시 낭송이 있었고, 본회 지부위원 박성기 교수(고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과 리더십”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박 대통령의 나라 사랑과 경제 발전에 힘써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18년 만에 찾게는 가난을 극복했고, 둘째는 김일성을 이겼으며 이 위대한 선각자적 판단으로 경제 대국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자유민주주

의를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의 21년 행사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3부 기도회 순서는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의 인도로, 제목 기도 시간으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 2)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둔포아산성결교회), 3) 민족복음화와 성서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홍석용 목사(민주사랑교회), 4)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를 위하여 후원회 이세영 장로(탕정나사렛성결교회), 5) 정권교체와 교회 탄압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배방감리교회)의 기도와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의 마무리 기도에서 이어서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샘교회)의 광고와 축하인사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장소를 이동하여 본회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시온감리교회)가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기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공동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기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기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박인숙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종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협동총무 이요한 목사, 박종성 목사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수상식 가져

대상 허이레 시인·강소이 수필가 수상... 신인상 16명 등단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2020년도 문학상(대상) 수상 및 신인상 수상식이 지난 11월 11일(목)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유니케이 라디오 및 TV광개홀에서 열려 한국문학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문학동지 선후배 간 사랑의 교체를 나누는 등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해 한바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허이레 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향기', 강소이 수필가의 '독립운동가-숨을 만나다(1,2권)'라는 작품으로 각각 받았다.

시부분 신인상으로는 주정현·노만섭·유의·조준현·김태원·오봉환·이병균·정명자·류용하·고병호 씨가, 조지열 씨가 동시 부문으로 각각 등단했다. 그밖에 수필부분으로는 정요세·김지영·권길홍·정정옥·신영구 씨가 각각 수상해 신인으로 등단했다.

이날 행사는 윤윤근 시인의 사회로 발행인 박영를 박사의 인사 및 소개, 평론가 김봉근 박사의 인사말, 심사위원장 유승우 박사의 심사평, 시상 및 등단해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를 박사는 "지난 한해는 작가 개인의 체력과 생각에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요소가 작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문학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함축적 예술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이 험겨울 때 문학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고 전한 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시인 김영백 박사·작가회 총무 정지홍 시인·세계시문학회 명예회장 오진환 시인은 격려사와 축하로서 등단자들을 축하했으며 주정현 시인이 수상자 대표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강남구 방송인의 축하와 작가회 총무 김민정 시인의 광고에 이어 윤윤근 시인의 폐회선언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작가 등용문인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은 한국문단은 물론 세계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들이 마음껏 문학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하고자 창간했다. 그동안 1백50여 명이 넘는 역량을 갖춘 문학인들이 사상과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GS건설(주), 업무협약

발달장애인 미술전의 성공적 개최 목적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궁열, 이하 국장협)는 최근 GS건설(주) 대표이사 임병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소속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미술전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는 국장협에서 운

영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인 양성과 문화예술 저변확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23개소 지역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해 500여 명의 교육생이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을 지원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장협과 GS건설(주)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그랑서울 1층 로비에

서 공동주최로 전시를 개최한다. 국장협은 전시를 주관하며, GS건설(주)는 전시 장소 제공 등 전시 및 창작지원을 할 계획이다.

본 전시는 발달장애인의 세계관과 작품의 저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로서의 성취감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월드비전, 토브 정주는대표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토브(TOBE) 정주는 대표를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으로 최근 위촉했다.

토브 정주는 대표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지역 '마을돌봄센터' 건축 후원금으로 총 2억 5천만원을 기부하며 고아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에스와티니 마을돌봄센터는 보호자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며 마을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 정주는 대표는 나눔 프로젝트 '체인지 더 월드' MC로 참여하며 재능을 기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방문, 해외 취약계층 아동들과 직접 만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주는 대표가 운영하는 기방 브랜드 토브(TOBE)는 히브리어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일, 완벽한'이란 뜻을 지녔다.

브랜드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며, 고액과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토브 정주는 대표는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사명을 행동에 옮기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고, 뜻깊다"며 "깨끗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에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해 더 많은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고 계신 정주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주는 대표님을 비롯해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분들이 전해주시는 후원금과 마음이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사용되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밥피어스아너 클럽(Bop Pierce Honor Club)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미국인 선교사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후원자에게 정식 회원으로 위촉하고 후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무기가 지닌 군사적 효용성을 크게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말을 실감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는 공산주의 원칙도 그들의 통치 원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몇 개의 핵폭탄을 만든 것을 주요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적 망신에 이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벌일 군사적인 능력도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무기가 지닌 군사적 효용성을 크게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신간 안내

시험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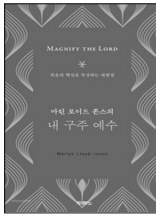


시험을 칠는 원동력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 사람 없이 시험을 칠 수 없고, 은혜 없이 고통을 이길 수 없다.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다. 시험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단지 힘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바로 하나님 사람이다. 그 사람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감명하라. 시험과 시험 속에서 고통보다 더 큰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해달리고 기도하라. 시험 중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한다(시 77:7-9).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룩한 갈망의 증거다(시 144:2).

저자 : 김남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11-17 | (142*204)mm 240p | 판매가 : 15,000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내 구주 예수



1959년 12월 런던 웨스트민스터채플 주일 예배 강단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의 정수가 살아 숨 쉬는 이 비리아의 찬가(누가복음 1장 46-55절)를 자세히 풀어 소개하면서, 우리를 인생의 유일한 구주 예수께로 초대한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으신다. 암울한 현실에 눌러 찬송을 잃어버린 시대, 구원자를 고대하는 이들을 향한 힘 있는 격려와 능력의 메시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세상 휴일(서양 명절)로 전락한 성탄절의 참의미와 정신을 회복한다. 어수선한 연말 연시, 예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싶은 이들에게!

저자/역자 : 마틴 로이드 존스 (D. Martyn Lloyd-Jones)/홍중락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1-11-17 | (112*180)mm 184p | 판매가 : 10,000원

수수께끼 같던 영혼몸의 비밀이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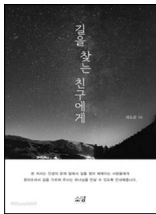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1999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다음 2005년부터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공부하고 알게 하셨다. 그때부터 내 심중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나라의 복음에 기초하여 새롭게 보는 것이었다. 비로소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나라의 사고방식(kingdom mentality)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에 비추어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자 : 손기철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11-15 | (145*210)mm 336p | 판매가 : 18,000원

길을 찾는 친구에게



인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해결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필요하다. 해답은 하나이지만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성경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히 찾아가기도 하였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나주셨고,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 그리고 성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다.

저자 : 하도균 | 출판사 : 도서출판 소망사

발행일 : 2021-11-18 | (145*210)mm 264p | 판매가 : 16,000원

갔고 있다. 핵무기 보유로 대대해진 평양이 자신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 또 한 차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키신저의 분석을 다시 읊미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치적으로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일방적인 양보나 선심을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동맹의 틀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쿼트 플러스 일원으로 대북, 대중국 압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보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자국민 보를 확실하게 보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쿼트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는 남북한 또는 중국을 포함한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보편적 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행위동기를 먼저 검토한 후 현재의 각종 국가 간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정당성과 힘의 균형이란 틀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국가별 대화야말로 21세기의 위기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함의를 이뤄낼 유일한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각국이 지구 이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대립은 불륜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통째로 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우려와 걱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열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들뿐 아니라 국가에도 겸허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갈등 해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보편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걸맞는 '쿼트 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 압박이 아닌 대등한 외교적 자세로 인해를 것이다.

7. 대한민국은 구한말 당국적인 친청사대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쿼트안보동맹에 들어야 한다.

일본 기사다 정권은 미국의 나토국가 방위비(GDP 대비 2%) 증강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강 정책으로 490억 달러 책정은 1천억 달러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70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우방국가이다. 일본은 쿼트 동맹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중장부대 언어로 관계 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 전체주의로 나가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위협하면서 일본 국민 86%가 중국을 위협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한국은 구한말 청나라 사대주의 고립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한말 한국은 외교 고립에서 가쓰라-대프트 밀약에 근거한 일본에 국권을 잃었다. 한국은 쿼트안보 참여해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나토라는 다자 동맹 틀 안에서 허락되었듯이 한국도 쿼트동맹에 들어가 새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21년 11월 9일

실록을 끄는 나비행동

5면에서 이어짐

이러한 고착된 상황 하에서 미중 양국 간 서로의 의심은 상대방 군사적 책략과 방어 프로그램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최악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이 팽창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려는 야욕을 보임으로써 여타 국가들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소련보다 더 위험한 공산정권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트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미중 대립 구도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라는 우리의 외교적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국가존립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시급한 과제인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강자의 망설임 때문에 강자가 약해지고, 약자의 대담함 때문에 약자가 강해

장기기증, 서민환 소방관 홍보대사

“심장제공 기증자의 고귀한 사랑 이어갈 터”

〔연〕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교119안전센터(센터장 조규영)에서 심장을 이식받은 서민환 소방관(40세,남)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서 씨는 이전의 자신과 같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초, '의료진과 코레일, 승객들이 만든 3분의 기적으로 심장이식을 기다리던 한 젊은 소방관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돼 화제를 모았다.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을 대구에서 서울로 이송하던 중 간발의 치료 KTX를 놓칠 뻔했지만, 의료진의 요청과 코레일, 승객들의 배려로 열차 출발 시간을 3분간 늦춰 심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를 통해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은 주인공이 바로

신교119안전센터의 서민환 소방관이었다.

심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의 고귀한 사랑과 의료진 및 코레일, 승객들의 도움으로 올해 1월 13일 심장이식을 받고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서 소방관은 지난 7월, 6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그는 예전 자신과 같은 응급 환자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 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9년이였다. 당시 화재 진압 대원으로 일하던 그는 업무 도중 쉽게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이상하게 여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장의 기능이 21%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 기능은 점점 더 나빠져 심장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결국 2020년 말, 에코노(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중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비)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심장이식만을 기다리는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지금, 그곳에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돼주세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수는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하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발견이 중요함을 알리고,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112로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 △아동학대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할 것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도 지켜볼 것의 3가지 약속을 이행하며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 부흥회를 마치고

새빛선교교회 가족세트전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까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가족세트전도는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1만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빛선교교회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작성하고 3개 사업장과 27가정에 교회를 불리고 축복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성도들이 떠나고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는 이때에 가족세트전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살아가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빛선교교회는 2022년도에 가족세트전도를 6회에 걸쳐 매월 첫째 주 2박 3일을 능력전도 하는 교회로 전환을 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가족세트전도에 오시면 현장전도가 되고 목회자는 도전되며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여 다시한 번 부흥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새빛선교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가족세트전도로 전도하며 수원지역과 열방을 선교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목회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달려갑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며 가족세트전도를 실행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흥 성전하여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족세트전도 화이팅!

임종필 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필리핀크리스찬대학교(PCU) 종교철학박사(Ph.D.)
- (사)대한민국가족복지문화재단 이사장
- 행복한마를 작은도서관 대표
- 새빛선교교회 담임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국교회, 아동돌봄문제 해결 나서야

장헌일 박사,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강조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박사(생명나눔교회 목사)는 지난 11월 12일(금)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소장 송오석 교수)가 주최한 2021 하반기 학술대회 〈종교영역에서 공공성〉 심포지엄에서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와 공공성(교회 공공정책 일유형으로서 아동돌봄 정책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장헌일 박사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지난 10년간 세계 최하위 인구절벽 상황에서 무엇보다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여 아동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장 박사는 또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 성직지향주의, 변영신학에 의한 기복주의 신앙 등에 몰든 건강치 못한 교회론으로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말씀과 삶의 일치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불균형된 강단과 개교회중심의 교회 사역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갈등과 부작용 특히 코로나팬데믹 대치 상황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앙의 개인주의화 즉 신앙의 사사화로 교회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회성을 상실한 각 성도의 삶 역시 개인적 관심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공동체로서 교회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공성과 공공회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 200여 노숙인에게 따뜻한 점심 한끼 대접

18일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도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11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서부역 노숙인 급식시설인 참좋은친구들(이사장 신석출 정로)에서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밥나눔 행사를 열고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로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폭넓은 현실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한 끼 점심을 나누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한교연은 참좋은친구들측에 200인분의 식사비와 함께 돼지고기 30kg, 내복, 속옷, 양말, 칫솔치약세트 등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예배 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를 비롯, 한교연 임직원과 여성위원회 회

원들이 예배에 참석한 노숙인 150여 명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밥나눔 행사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의 사회로 목도 후 서기 김병근 목사가 기도했으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인사했으며 이사장 신석출 정로가 감사했으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와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필리핀에서 심용재 목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선교지 지역

현재 선교지는 비대면과 대면을 번갈아 가며 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폐쇄 조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예배와 사역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2,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으며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부터는 12-17세 접종 예약과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률은 낮은 가운데 있지만 기도와 방역을 통해 조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 9월과 10월에 저희 신학생 남편과 사역자와 사역자 시모가 코로나로 인해 소원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역자 사역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격리되어 지금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마음이 굉장히 한동안 무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찾는 모습 또한 앞으로의 미래가 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 곳(한 가나 이 부족 사가빠 지역과 누에바 미스가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다소 진행이 더디지만 성도들은 모여 기도 하며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응답 교회

또한 사역지 중 한 곳인 일로코서 지역 산타크루즈 예수응답 교회는 폐쇄 조치 후 다시 재개되었고 성도들이 폐쇄 조치 전보다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감동함을 느낍니다.

또한 사역지인 이 교회는 현재 바다 타일 공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400장 60,000 패스(한화 1,420,000원). 또한 사역지인 비가스 '신성한 다리 교회' 또한 몇 년 동안 적당한 교회를 건축할 땅을 위해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하나님께서 귀한 학교 사역을 통해 일꾼들을 훈련시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SCCBC 신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이전 학기 47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꾸준히 교육받으며 훈련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기 신학교 개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12명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제 장학 프로그램(UFM)에 동참하셔서 5명에 학생이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는 스폰서십(Sponsorship)을 계획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지난 대풍으로 학교에 비가 세서 보수가 필요한 가운데 이를 위한 후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내 데이시는 현재 국제학교(초등학교 1~ 고등학교 10학년)를 맡아 사역하고 있으며 이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일부 부모들이 직업을 잃고 공립으로 옮김) 기도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후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소식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귀한 후원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교회 사역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저는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이들(중소년)은 11월부터 예약과 접종이 시작되어 첫째 성진(리미스)이는 1차 접종을 마쳤고 둘째 예진(예프라)이는 접종 예약을 마치고 접종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은 성진이 내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진이를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 모두 학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지속적인 29 교회 영적 성장과 안전을 위해(성도들, 사역자와 가족들).
2. 현재 건축 중인 교회 건축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올해 안에 완공 진행될 수 있도록.(사가빠 교회, 마가빠 교회)
3. 안전하고 적합한 교회 부지 선정과 건축 그리고 예수응답교회 바다 타일 공사 재정 확보를 위해 사가빠 교회 지붕 보수 공사 재정 확보를 위해, 폐쇄 지역 해제를 위해, SCCBC 신학교 보수공사(비개는 곳). 학생들 장학 후원자(6개월 한 학기에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와 신학교와 국제학교 후원자를 위해, 국제학교 한국과 영어 개인 교수(그들) 프로그램이 많이 확보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 가르치는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섬기고 있는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5. 성진이 대학 진학과 예진이 학업과 백신 접종을 위해, 아내 국제학교 사역과 선교사 가족 건강과 사역을 위해.(영적인 부분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E mail: james.shim67@gmail.com Kakaotalk: JFFM2017전화번호: 63-9209499741

Address: #7, Modest street Mines View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

/농협049-12-163780(심용재) 신한110-019-419233(심용재)



선교사 말씀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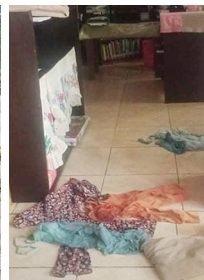
데일리 국제 학교



링가얀교회 청년들이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마가빠이 교회 건축.



비가 세는 신학교 도서관.



타구딘 교회 청년들 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 신 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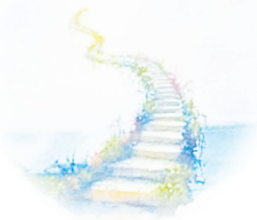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 교회 권사

내 마음 천국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보니
마음속은 어느새 천국 임하고
평안의 꽃으로 만발하여라~~

성령님 내안에 계시니
금 촛대 놓여지는 성전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하여라~~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말 하는 자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살 수 없어라~~

해와 달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창공을 나는 새 헤엄치는 물고기
모두가 그분의 숨씨이여라~~

만물 속에 주님의 뜻 넣어 두시고
영안 열어 밝은 길로 인도하시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라

요 20:19 말씀을 묵상하며
평강이 임한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임을 깨닫는다

CTS, 27일 서울시청서 성탄트리 점등식

11월 27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개최

CTS는 2021 대한민국 성탄 축제'를 알리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11월 27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후원, CTS 주관으로 한국교회와 연합해

마련된 이번 성탄 트리는 높이 16m, 폭이 9m로 서울광장 '1 SEOUL U' 간판 뒤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판정자만이 참석이 가능하다

고 한다.

1부 성탄트리 점등식과 2부 축하 음악회가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성탄트리 점등 인사로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과 CTS 공동대표이사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류영모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이 교계 대표로 참석한다. 시민대표로는 서울시청 신우회 조용성 회장과 서울시 경향 최관호 청장, 서울시 김인호 의장과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성탄트리 점등 스위치를 누른다.

성탄 트리 점등식에 이어 2부 음악회에서는 가수 율리, 성악가 소프라노 소프라노 신델라가 출연해 성탄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그리고 CTS K-기스펠 출연팀 JM, 정은주, 오정환, 박은지, 김은결, 김병희, 손예지, 채윤희, 이하민이 출연해 합동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사설

지도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 '검찰개혁에 대하여'라는 책에는 구구절절이 맞는 말만 옳은 말만 써놓았다. 그런데 집권 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6개월마다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반분 검사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진분 검사들은 모조리 요직으로 발령을 냈다. 6개월마다 반복되는 검사 인사에 검사들은 입을 닫고 정권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외부의 적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종전선언을 어떻게든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뒤 상황 고려하지 않고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안보와 관련하여 굴종의 자세로 이어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비롯 안보에 많은 구멍을 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여덟 번이나 발사하며 '핵능력 고도화'라는 목표에 한발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전혀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강행하게 되면 북한이 "전쟁

이 완전히 끝난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왜 있으며, 상대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왜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제로 북한은 최근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큰 불평을 지행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정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빛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한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잠잠한 듯했는데,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갑자기 '차별금지법' 문제가 또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선포 조건'임을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태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갑자기 차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는가? 지난해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1,000명 가운데 27.2%이며, 특히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 조항인 동성애 차별에 관한 것은 불과 2%이며,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으며, 이에 기다렸다는 듯 11월 3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대표

발의한 4명의 의원들이 모여 주장하기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거나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어떻게 행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여러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회법학회는 우리 사회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이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계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역차별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법안을 만든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작용의 현상은 얼마든지 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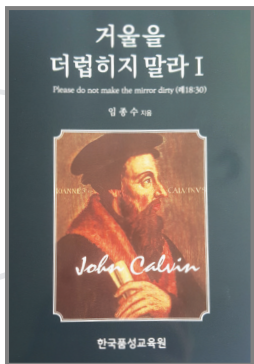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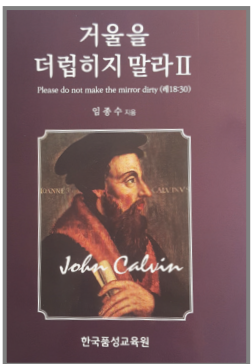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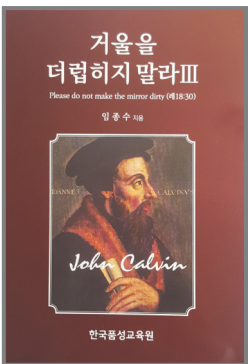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라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